



■ 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6호선 합정역
7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소요

■ 미사

평일미사	월요일	오전 10시
	화-금	오전 10시·오후 3시
	토요일	오전 10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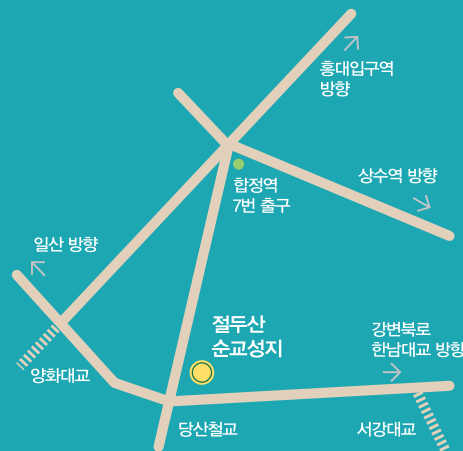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3시
	주 일	오전 10시·오후 3시

■ 박물관

관람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5시
휴 관 일	월요일,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기타 관장이 지정하는 날

■ 성지 사무실 02-3142-4434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월 휴무)

■ 순례 예약 02-3142-4825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월 휴무)



JEOLDUSAN
MARTYRS' SHRINE PILGRIMAGE



절두산 순교성지 순례



절두산순교성지
Jeoldusan martyrs' shrine

www.jeoldusan.or.kr
jeoldusan

jeoldusan@daum.net
jeoldusan1967

JEOLDUSAN MARTYRS' SHRINE PILGRIMAGE



절두산 순교성지는?

조선시대부터 양화나루 잠두봉이라 불리며, 한강 변의 명승지로 불리던 이곳은 병인박해(1866) 당시 수많은 천주교인의 머리가 잘려 숨졌다고 하여 현재 '절두산(切頭山)'이라 불리고 있다.

한국인 첫 사제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가 있고, 100년 후인 1946년 전국 단위의 한국천주교순교자현양회가 조직되어, 순교자들의 넋이 서려 있는 이 지역을 성지로 조성하기 시작하였고, 병인순교 100년이 되던 1967년 비로소 성당과 박물관이 준공되었다. 1997년, 우리 역사의 중요한 유적지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유산인 사적(서울 양화나루와 잠두봉 유적)으로 지정되었다.

2018년 9월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교황청 공식 승인을 받은 세계 국제 순례지가 되면서 절두산 순교성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인 모두의 순례지로서 발돋움하게 되었다.

교황청 승인 국제 순례지, 천주교 서울 순례길
제3코스 일치의 길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중림동 약현성당) → 당고개순교성지 → 새남터순교성지
→ **절두산순교성지** → 노고산성지 → 용산예수성심신학교 → 왜고개성지 → 삼성산성지



1

한국순교성인시성기념교육관

- 성지 사무실
- 부활의집 사무실
- 봉헌초 구매소
- 성물관매소
- 박물관 학예연구실
- 순례 기념 스탬프

3

절두산 순교 기념탑 십자가

1962년
순교자현양운동의 일환으로 세워진
기념탑은 낙뢰로 훼손되었으나
탑의 일부인 십자가는 남아서
보존되고 있다.

2

승리의 팔마를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

최봉자 수녀 작, 2001년
그리스도교에서 '팔마(Palm)'는 죽음을 넘어
이룬 승리를 상징한다. 작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던 순교자들에게
당신이 거둔 승리의 영광을 주는 장면을
그려내고자 하였다.

4

성녀 마더 데레사상

임송자 작, 2018년
가난한 이들의 벗, 마더 데레사
수녀의 절두산 순례(1985년
1월 29일)와 시성(2016)을
기념하여 세웠다.

7

순교자를 위한 기념상

최종태 작, 1973년
병인박해(1866) 당시 절두산에서 순교한
첫 번째 가족인 이의송(프란치스코),
김이쁜(마리아), 이봉익(베드로)을
형상화하였다.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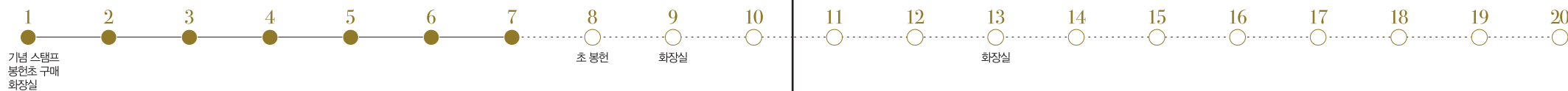
세상에 빛으로 오심

안경문 작, 2011년
성경 속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와 같이,
잃었던 아들이 되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진심으로 기쁘게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5

형구

조선시대에 교수형을 집행하기 위하여 고안된
도구이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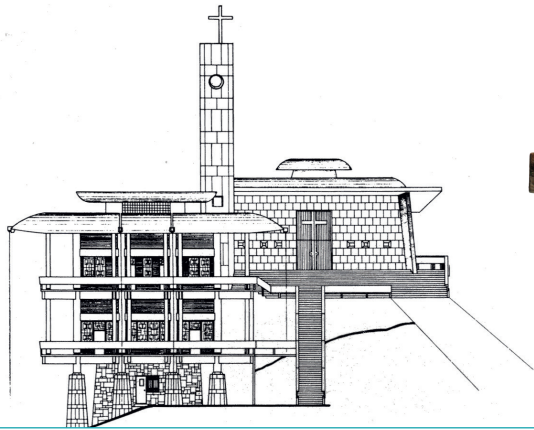
루르드 성모상(초 봉헌)

프랑스 루르드에 있는 마사비엘의 동굴에서 발현(1858)하신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본 따 조성되었다. 1978년 9월 26일 복자 축일 미사가 끝난 뒤에 교황대사 루치아노 안젤로니 대주교에 의하여 축성, 봉헌되었다.

9

병인순교 100주년 기념 성당

성당과 박물관의 설계는 서울대학교 이희태 교수가 맡았는데, 절두산 주변 지형과 역사적 의미, 그리고 순교정신을 조화롭게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성미술(聖美術) 제작에는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조각가 김세중을 중심으로 윤명로, 정창섭, 이순석, 최의순, 이남규 등의 작가들이 참여해 순교의 역사에 예술적 가치를 더했다.



10

성인 유해실

성당 제대 아래에 마련된 이곳에는 27위의 한국순교성인과 1위의 무명순교자 유해를 모시고 있다.



†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1821~1846
† 이호영 베드로	1803~1838
† 이영희 막달레나	1809~1839
† 이정희 바르바라	1799~1839
† 최경환 프란치스코	1805~1839
† 앵베르 라우렌시오 주교, 조선대목구 제2대 대목구장	1796~1839
† 모방 베드로 신부	1803~1839
† 샤스탕 야고보 신부	1803~1839
† 허계임 막달레나	1773~1839
† 김성우 안토니오	1795~1841
† 베르뇌 시메온 주교, 조선대목구 제4대 대목구장	1814~1866
† 랑페르 드 브르트니에르 유스토 신부	1838~1866
† 도리 헨리코 신부	1839~1866
† 불리외 루도비코 신부	1840~1866
† 남종삼 세레자 요한	1817~1866
† 최형 베드로	1814~1866
† 우세영 알렉시오	1845~1866
† 다블뤼 안토니오 주교, 조선대목구 제5대 대목구장	1818~1866
† 위앵 루카 신부	1836~1866
† 오메트르 베드로 신부	1837~1866
† 장주기 요셉	1803~1866
† 황석두 루카	1813~1866
† 정문호 바르톨로메오	1801~1866
† 손선지 베드로	1820~1866
† 이명서 베드로	1821~1866
† 한재권 요셉	1836~1866
† 이윤일 요한	1823~1867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

병인순교 100주년 기념 성당의 동쪽으로 접해 있는 박물관은 '절두산 순교 기념관'의 이름으로 출발하여,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으로 개칭했다. 국내외 천주교회의 사료와 순교자의 유품을 포함하여 약 5,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한국천주교회 순교와 박해의 역사를 주제로 한 상설전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으로 매년 성미술품과 다양한 주제의 특별기획전시를 마련하여 순례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사진촬영. 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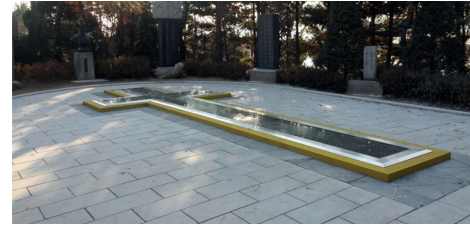
사진촬영. 노경



성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

진뢰진 작, 1972년
정부 주도로 출범(1966)한 애국선열조상건립위원회가 민족의 귀감이 되는 인물 15인 중 하나로 김대건 신부를 선정하여 건립된 동상이다. 김대건 신부는 조국 근대화의 선구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 동상 건립 대상 인물로 선정되었다.

병인순교 100주년 기념 성당 건립 당시 종탑 십자가



오성바위

병인박해 때 순교한 다블뤼(안토니오) 주교, 오메트르(베드로) 신부, 위앵(루카) 신부, 황석두(루카), 장주기(요셉) 다섯 성인이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될 때와 다시 서울에서 보령 갈매못 형장으로 끌려갈 때 쉬었다 간 바위라고 전해진다.



우리들의 친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박정환 · 신옥주 작, 2004년

십자가의 길(15처)

이춘만 작, 2001년
신유박해(1801) 순교 200년을 기념해 설치하였다. 작가는 옛 신앙 선조들이 암송하였던 <십자가의 길>의 옛말, <성로신공> 구문을 함께 적어, 이곳을 방문한 순례자가 순교자의 길을 함께 걸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척화비

신미양요(1871) 이후
홍선대원군은 전국 각지에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을 경계하는 내용의 비석을 세웠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장 척화비(서울시 유형문화유산)를 본떠 제작한 것이다.





16

성인 남종삼 세례자 요한상

병인박해 때 순교한 남종삼의 시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9년 성인의 후손인 남상철(프란치스코)이 기증하여 세웠다. 남종삼은 1984년 시성되었다.



성인 남종삼의 순교사적비



남상교(성인 남종삼의 아버지)의 청덕비

현풍현감, 충주목사, 동지돈령부사 등을 역임한 남상교(아우구스티노)는 병인박해 순교자이자 남종삼 성인의 부친이다. 현풍현감으로 지낼 당시 그의 청렴하고 고결한 덕행을 기려 세운 비석은 1974년 절두산으로 이전되었다.



은언군과 송마리아의 묘비

정조의 이복동생이었던 은언군의 부인 송마리아는 천주교인이었다는 이유로 신유박해 때 사약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귀양 중이던 은언군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 묘비는 은언군과 송마리아를 사면하여 철종 2년에 세운 것이다.



한국천주교회의 증언자 박순집 베드로 묘와 일가족 16위 순교자 현양비

박순집은 순교자를 모시고 그들의 유해를 찾는 일에 생애를 바친 신앙의 증언자이다. 그의 시신은 인천 용현동에 안장되었다가 1971년 절두산에 이장되었다. 후손들은 1979년 그와 가족들(16위)의 공적을 기리며, 현양비를 세웠다.

20

절두산순교자기념탑

이춘만 작, 2000년
절두산에서 치명하신 유명, 무명의 순교자들을 기리며, 기념비를 조각하고 세웠다. 절두산에서의 순교자 중 13위가 현재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포함되어 시복을 기다리고 있다.



19

성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상

김세중 작, 1984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 기념대회 및 103위 시성식을 위해 방한하였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절두산 순례(1984년 5월 3일)를 기념하여 제작하였다.



18

최종태 조각공원

작가의 성미술 작품 기증을 기념하여 2023년 조성하였다. 현대의 성모상, 성모자, 손, 두 사람, 얼굴 등의 작품이 있다.



17

성 요셉과 아기 예수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기념 스탬프
봉헌초 구매
화장실

초 봉헌

화장실

화장실

절두산 13위 순교자

이름	연령	신분	순교	순교형태
박래호 요한 사도	54	향족	1866년	효수
김이쁜 마리아	54	양반	1866년	효수
이의승 프란치스코	45	양반	1866년	효수
이봉익 베드로	23	양반	1866년	효수
김한여 베드로	58	능라장	1866년	효수
김진구 안드레아	41	사령	1866년	효수
김큰아기 마리아	32	부인	1866년	효수
이기주 바오로	27	미상	1866년	효수
이용래 아우구스티노	44	양반 훈장	1866년	효수
박성운 바오로	23	편민, 집꾼	1866년	효수
원윤철 요한 세례자	80	미상	1866년	효수
유 마오로	45	미상	1866년 이후	참수
강 요한	67	어민, 회장	1867년	참수



시복 시성 기도문

* 주교회의 2014년 추계 정기 총회 승인
주교회의 2017년 추계 정기 총회 수정

-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
저희 신앙의 선조인 순교자들과 증거자 최양업 토마스 사제에게
사랑과 성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 주님께서는 저희 순교자들에게 강한 믿음과 용덕의 은혜를 베푸시어
순교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최양업 토마스 사제에게는
복음 선포의 열정을 주시어 주님을 현양하게 하셨나이다.
- ◎ 자애로우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 신앙의 선조인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에게 시성의 영예를 허락하시고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사제,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하느님의 종 신상원 보니파시오 사우어 아빠스와 동료 37위에게는
시복의 영광을 허락하시어 후손인 저희들이 그들을 본받아
신앙을 굳건히 지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한국의 모든 성인 성녀와 복자님!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기념 스탬프